"초고속인터넷 옮기면 최고 42만원 드려요"

통신사 출혈경쟁 점입가경

마케팅비 상한 등 규제 불구 혼탁 여전

초고속 인터넷이나 결합상품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상한을 정하는 등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처럼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가입시 최고 42만원 지급' 전단지…스팸문자도=아파트 광고판 등에 붙어있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단에는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및 IPTV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현금, 사은품 전국 최고', '현금 당일 지급', '최대 50% 할인' 등 각종 자극적인 문구가 KT, SKT, 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의 대리점 이름으로 보낸 전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KT의 전단지에는 '현금 최대 42만원' 등이 버젓이 적혀있었으며 LG텔레콤 전단에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3종 결합상품 2회선을 동시에 가입하면 '90만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 3월부터 40만원대의 현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인터넷 등 가입을 홍보하는 스팸문자도 쏟아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오늘 가입시 현금 30만원+2만원 더 전화기 공짜 TV 3개월 공짜'라는 내용이다. 상담원들의 가입 유도 광고 전화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급증…공멸 우려도=마케팅 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지난달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급증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 규모는 지난 1월 2만9381명에서 2월 7만6309명으로 늘었고, 3월에는 11만894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KT의 경우 3월 가입자 순증이 7만5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각사 최고경영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열 경쟁은 공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간담회에서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자정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선 대리점·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혼탁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느 한 업체만 경쟁을 멈출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올 여름 노타이로 시원하게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쿨맵시 패션쇼에서 이만의(왼쪽에서 두번째)환경부장관과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가 모델들과 함께 넥타이를 푼 시원하고 간편한 복장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수출입기업 특화지원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 이달부터 프로젝트 가동

광주본부세관이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광주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광주본부세관은 21일 "지역 업체들이 세계시장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FIRST 프로젝트'를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FIRST 프로젝트'는 ▲FTA 기반구축(Foundation) ▲집중연구(Investigation) ▲기업친화(Relationship) ▲활용지원(Supporting) ▲사례전파(Transmission) 등 5대 전략의 이니셜이다.

FTA 기반구축 전략은 현장중심 세관행정 지원체계 구축과 기업대상 '손에 잡히는 FTA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으로 짜여져 있다. 집중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FTA비즈니스 모델 개발, 'FTA통계자료 분석팀' 운영 등 기업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이 사업을 통해 2665개 광주 수출·입기업(수출 953개·수입 1712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직·간접적인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743.91

IT주 강세…코스피 연중 최고

미국 애플의 가파른 실적개선에 코스피지수가 1,750에 육박했다. 지난 15일 연고점(1,743.91) 기록을 4거래일 만에 새로 썼다. 골드만삭스 피소로 일시 둔화했던 외국인 매수가 되살아났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으로 급락했다.

전기전자(IT)와 자동차 등 대표 수출주(株)들은 환율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강세를 연출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9.55포인트(1.72%) 오른 1,747.58에 거래를 마쳤다. 2008년 6월 18일 1,774.13 이후로 22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은 2761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올해 들어 누적 순매수액이 10조1716억원(정규장 마감 기준)을 기록했다. 기관도 998억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20억 줍니다

남부발전 내부 비리 제보자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이 내부 비리 신고에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내거는 등 파격적인 부패 근절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21일 올해를 '청렴도 1위 달성의 해'로 선포하고 직원의 비위 사실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 자기책임제, 가중처벌제, 연대 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자기책임제는 그간 부패행위로 해임,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의 명단만 공개했던 것을 바꿔 구두경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를 받은 직원의 인적사항과 적발 내용을 사내 망에 올리는 제도다. 남부발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패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사규를 신설했다. /연합뉴스

소득 축소 신고한 호화생활자 꼼짝마!

국세청, 탈세혐의 등 종합 검증 나서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신고 소득 검증에 나선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펼쳐진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과 국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지출액에서 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 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비교·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늦어도 7~8월께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 분석대상은 부동산·주식·해외여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8월에 가서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금융권 2개월째 대출 감소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신은 2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특히 남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건설부문 악재로 건설업계 대출금이 크게 감소했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2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6753억원 늘어나 전달(+2394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

예금은행 수신은 대학등록금 수납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일시예치 등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3539억원이 늘어나 전달(+2782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기관 수신도 3214억원이 늘어나 전달(-388억원)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금융기관 여신은 1490억원이 줄어 전달(-1389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예금은행의 건설업계 대출금이 전달 757억원 증가에서 1542억원으로 격감한 게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